■ 최악의 겨울가뭄 … 신안군 임자도 르포

"석 달 째 목욕 한 번 못 했어요"

338세대 1천여 명 제한급수 고통
빨래 엄두 못내고 화장실 물 아껴

"우리 마을에선 물이 돈 보다 더 귀해요. 빗물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어요."

전남지역 도서지역이 극심한 겨울가뭄에 시달리면서 식수난에 따른 섬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8일 오전 11시10분 신안군 임자면 교동마을. 제한급수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마을에는 집 집마다 파란색 원형 저장용 물 탱크가 설치돼 있었다. 제한급수로 인해 부족해진 물을 끌어 쓰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설치해 둔 일종의 '생명선'이었다.

정오 무렵, 임자면사무소에서 급수 시작을 알리는 방송을 하자 주민들은 자신의 집 옥상으로 향했다. 물 저장 탱크에 물이 차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물이 절반 이상 차오르자 주민들은 밀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마을은 4일에 한 번(1회 6시간 급수) 꼴로 제한 급수를 받고 있다.

임자면 24개 마을 중 제한급수 마을은 대기와 대흥, 교동, 진리마을 등 4곳이다. 해당 가구수는 338세대, 주민 수는 1천 명이다. 애초 주민들은 저수용량 8만4천t의 상수원(유역면적 15ha)에서 물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상수원의 물공급이 중단되면서 식수난을 겪고 있다.

현재 담수(湛水)량은 5천t으로 저수용량의 6%에 그치고 있다. 임자면은 상수원이 바닥을 드러낼 경우 식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비상급수로 사용하기 위해 상수원의 물공급을 잠시 중단했다. 현재 주민들은 임자면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3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다.

4일에 한 번 공급되는 물의 양은 500t. 주민 한 사람당 하루 평균 125ℓ의 물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빨래나 청소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특히 넉넉하지 못한 물 때문에 목욕은 고사하고 수세식 화장실 물도 아껴쓰고 있다.

주민 변모(여·48)씨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는데, 지난해처럼 가뭄이 심한 적은 40년 만에 처음"이라며 "물 걱정 없이, 물 한 번 펑펑 써 보는 게 소원이다. 비라도 내리게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자면은 가뭄극복을 위해 관정개발에 나섰지만 식수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임자면은 하루 평균 200t의 지하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관정개발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4일부턴 격일제 급수를 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지역 18개 시·군 258개 마을, 1만4천49가구가 물을 옮겨오는 운반급수 또는 시간제·격일제 등으로 제한 급수를 받고 있다. 제한·운반급수를 통해 마실 물을 공급받는 지역민은 모두 3만1천306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2만5천905명에 비해 17%가 증가, 날이 갈수록 제한·운반급수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겨울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전남지역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커지고 있다. 신안군 임자면 교동마을의 한 주민이 18일 4일제 급수가 실시되자 자신의 집 옥상에 올라 물 저장 탱크를 확인하고 있다.

/신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광주·전남 환자 많다

건강보험연구원 발표

광주·전남지역의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가 전국 16개 시·도 중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천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광주 8만명, 전남 10만4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인구 1만명당으로 환산했을 경우 광주는 571명, 전남은 564명으로 광주의 경우 전국에서 2번째, 전남은 4번째였다. 천식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인구 1만명당 574명이었으며, 3번째는 경북으로 569명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3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만명 규모로 환산했을 경우 광주가 281명으로 전남 210명 보다 많았으며, 광주는 전국에서 3번째, 전남은 9번째였다.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로 인구 1만명당 334명에 달했다.

알레르기 비염은 광주가 12만7천명, 전남이 17만6천명이었으며 인구(1만명 당) 규모로는 광주가 903명(7위), 전남이 955명(5위)으로 조사됐다. 알레르기 비염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1만명 당 1천179명이나 됐다.

건강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환경성 질환은 공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해안이나 섬 등 지형적 특성에 따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중생 5명 '맥가이버 절도단'
사우나 탈의실 4곳 절도 '덜미'

문구용품으로 만능열쇠를 만들어 사우나 탈의실을 상습적으로 턴 '맥가이버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B중 3년 P(15)양 등 여중생 5명은 지난 7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갔다. 늦은 시간이라 탈의실엔 아무도 없었다. 친구에게 만능열쇠 제작법을 배운 P양은 문구용품으로 만든 만능열쇠를 이용해 L(여·24)씨의 옷장 잠금장치를 풀었다.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였다.

P양 등은 L씨의 옷장에서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과 고급 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카드와 현금으로 옷과 가방 등을 마구 구입했다. 돈이 떨어지면 또 다시 범행에 나섰다. 이들이 최근까지 만능열쇠를 이용, 잠금장치를 열고 금품을 턴 옷장은 모두 4곳(시가 250만원 상당).

그러나 '길면 꼬리가 잡히는 법'. P양 등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CCTV에 얼굴 등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됐다. P양은 경찰에서 "평소 입고 싶은 옷을 구입하려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을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엉이 등 야생동물 먹이 찾아 주택가로

19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옥동 (주)아산 공장에서 영양실조에 빠진 칡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를 이 공장 직원 박모(32)씨가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박씨는 "사흘 전 공장안으로 들어온 칡부엉이가 3시간 정도 날아다니다가 천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아 신고했다"고 밝혔다. 광산소방서 119구조대는 그물 총을(포획거리 4~5m) 이용해 부엉이를 안전하게 구조한 뒤 인근 동물병원에 인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광산구 우산동 시영아파트에서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매 1마리가 구조됐으며, 지난 16일에는 월출동 광기술원에서 탈진 증세를 보이던 너구리 1마리가 구조됐다.

/김형호기자 khh@

설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35곳 적발

전남 농산물품질관리원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뤄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과 가게 35곳이 적발됐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식육점, 청과상 등 관내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속인 업소가 26곳,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9곳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A음식점이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8개 음식점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한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북구 우산동 B음식점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13개 음식점이 소비자를 속였다.

이밖에 영암배를 나주배로, 중국산 당근을 국산으로, 중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국산된장으로 속인 업소들이 대거 입건됐다.

육우, 수입산 돼지고기, 쌀 등 제수용품 등을 판 9개 업소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599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종태기자 jtlee@

전자부품 공장 불 작업 중 2명 부상

19일 낮 12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H전자부품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작업중이던 이모(38)씨 등 2명이 부상(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나자 소방차 14대, 소방대원 50여명이 출동해 10분 만에 진화했으나 정비중이던 기계 두 대가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형호기자 khh@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채택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돈 되는 쇠붙이 닥치는대로 훔쳐

쌍나팔

○…광주·전남지역 일대에서 양수기와 화물차량, 맨홀 뚜껑 등 돈되는 물건이라면 닥치는 대로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

○…광주광산경찰은 최근 광주시 남구 승촌동 미나리 재배 단지에서 김모(58)씨 등 8개 농가의 양수기 29대 등 각종 물품을 훔친 김모(26·나주시 죽림동)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총 35회에 걸쳐 광주·전남 일대에서 양수기 49대, 노트북, 자동차 배터리, 네비게이션, 맨홀 뚜껑, 타이어 등 돈이 되는 것이면 모두 훔쳐 고물상에 팔았다고.

○…김씨는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훔친 물건을 여러 고물상에 나눠 팔았으나, 훔친 뒤 버린 차량에 인터넷 게임업체에 송금한 영수증을 흘리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절찬리방영제품
KBS MBC SBS YTN
大모닝365 Goodmorning365
1石2鳥
보양음료 숙취해소
간(肝)기능보호/피로(스트레스)감소
대한민국 1등 건강보양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18가지 임상검증
★ 발명특허 제0406822호
★ GMP통과(제조품질관리)
★ 한국한의학연구원임상검증
★ 미국 FDA-무독성판정 (CFR21-Eurofins,lab)
울금(심황) 오리나무 키토산 아스파라신산 칡(갈근) 사인 진피 복령
대추 생강 갈화 국화 홍삼 녹용 당귀 검초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굿모닝365는 남여노소 모두의 보양음료 입니다.
시·군별 대리점 모집 영업사원 모집
(주)굿모닝3651 광주·전남지사 062-267-7753
상담 및 구입문의 011-9612-8700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법원경매
친절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지석동	151/213	5억5540만	3억5380만	2층/병,의원적합.
학동	194/320	11억3550만	6억1800만	4층/식당,도장
궁동	48/233	8억3500만	4억8800만	병원,학원,사무실적합
오치동	50/52	1억6120만	9030만	창고,사무실적합
양산동	362/994	41억4000만	21억2000만	금융,병,의원,학원,사무실
신안동	110/257	6억8100만	3억5000만	4층/사무실
곡성석곡면	612/713	1억8680만	1억3080만	주유소,식당
점성읍	98/43	6800만	4760만	카센타부지적합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장성삼서면	200/44	8840만	4950만	도로접,소도읍안근
회정동	39/39	9800만	6860만	중앙병원인근
본촌동	89/35	8820만	6170만	광산대한근
중흥동	42/48	9520만	6660만	중흥천주교인근
진월동	40/46	8180만	4580만	(구)빅마트인근
우산동	48/40	1억2200만	6840만	우산초교인근
문흥동	54/60	1억6720만	9360만	우산주공인근
오치동	112/45	2억2980만	1억6088만	한전인근
영광영산면	125/26	3750만	2400만	신오마을내
용봉동	39/40	9964만	7000만	용주초교인근
계림동	95/86	1억6730만	7500만	계림3구역내
나주다시면	200/54	4850만	2720만	본촌마을내
중흥동	48/53	1억1920만	6875만	복구청인근

▶아파트
소재지	명칭	층	면적	감정가	최저가
월계동	천단금호	15층	34	1억500만	7350만
우산동	대광로제비앙	1층	35	1억9000만	1억640만
금호동	한국	14층	24	9000만	6300만
양산동	호반	2층	24	6000만	4200만
양산동	한국	20층	33	8000만	5600만
소촌동	이지스위트3차	12층	36	1억4000만	9800만
방림동	모아1차	7층	29	6800만	4760만
주월동	호반1차	3층	38	2억7000만	2억1600만
매월동	이지스위트	1층	35	1억4000만	9800만
문흥동	금호	5층	42	1억7600만	1억2320만

▶근린상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월계동	119.7	11억2000만	3억2120만	컨벤션홀,1층
일곡동	9.8	5700만	3990만	청솔1차상가
신창동	9.4	6000만	3840만	1층/철물점,타업종가능
매월동	11	6200만	2222만	신안용재유통센터,1층
풍암동	60.7	2억9200만	2억440만	금호타운상가2층,학원,병의원
학동	47.1	1억5000만	6720만	2층/전도프리자
월계동	10.1	1억8500만	1억1840만	1층/렌,샤터워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남평읍	전	528	3665만	2565만	관리지역,덕성제일아도
남평읍	임야	2283	6868만	3850만	흥암마을인근
왕곡면	답	887	2053만	1440만	신포저수지인근
요기동	대지	179	4618만	3232만	제1종주거지역
영광읍	답	1495	3460만	2442만	하동마을인근
지석동	전	177	1억1270만	1억1270만	대촌중인근
영광읍	임야	1086	1800만	1260만	관리지역,현황'전'
칠평면	답	1033	1억1543만	8080만	칠평고인근
나주남면	답	473	1437만	1010만	특화실마을인근
목과면	답	748	2230만	1560만	관리지역,목수초교인근

▶다세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림동	44.9	2억	1억1200만	무등스위트빌라,2층
곡성읍	20.4	2800만	1960만	대정연립주택,3층
풍향동	57.1	1억6000만	8960만	대주빌라,1층
방림동	14.8	4000만	2240만	송림맨션,3층
광천동	8.7	2700만	1890만	자명하이빌,2층
나주남평읍	18	2400만	1680만	심영연립주택,1층
화순광무리	17.8	3000만	2100만	대형연립,2층

▶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수동	634/185	11억5080만	5억1560만	매월유업인근,도로변
화순읍리	1247/641	7억1766만	3억1700만	동연농공단지내
용동	1565/689	23억2100만	13억	농협공단내,PVC파이프공장
당동리송천	1292/706	12억2400만	5억4830만	금성농공단지내
용동	503/412	9억6800만	6억7760만	평동공단내

▶다가구(원룸)/숙박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신가동	90/121	3억7140만	2억8000만	3층/12가구,신가제원인근
쌍촌동	63/105	3억3220만	2억3260만	3층/12가구,상무고인근
지산동	85/118	3억2530만	2억2770만	3층/18가구,법원인근
학동	82/133	4억3540만	3억4700만	4층/18가구,학동3구역내
우산동	74/99	2억6400만	1억8480만	3층/15가구,법원동측위치

▶오피스텔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구동	9.2	4300만	1930만	구동오피스텔,10층
치평동	47.4	3억8000만	2억5200만	르자티움마크,14층
회정동	12.2	5500만	2464만	금호월드,12층
치평동	24.1	1억5000만	6720만	그랜드,9층
월산동	13.7	8600만	3090만	동강,8층

용동 대503/건412 감정가9억6800만 최저가6억7760만 공장/평동공단내
학동 대82/건133 감정가4억9540만 최저가3억4680만 원룸,학동3구역내
용봉동 대130/건247 감정가7억800만 최저가3억8660만 식자재창고,사무실
궁동 대48/건233 감정가8억3500만 최저가4억8760만 병원,학원적합
치평동 전용면적47.4 감정가3억6000만 최저가2억5220만 르자티움오피스텔
월산동 대118/건295 매매가4억7000만 교통편리,대로변 병원,요양원적합
옥션코리아(주) 법원경매 입찰장 지산동 주민센터 중앙지원방송국 조대 산수오거리 삼환사거리 법원정문 중앙초교